



알리와 테무
개인정보 유출 논란
니



Life

한미약품
임종윤·임준훈 해임
L2



지역·지구 건강하게... 가치있는 생각으로 같이 바꾸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롯데카드

창업가 양성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기업이 있다. 바로 롯데카드다. 지난 2022년 6월을 시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인 '핑크어스(THINK US & EARTH)'를 실행하고 있다. 예비·신규 창업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겠다 취지다.

롯데카드는 사내 업무에도 지구를 위한 환경을 만들었다. 디지털·페이퍼리스 업무를 확대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였다. 종이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벌목을 예방하고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여성임원 확대, ESG채권 발행 등 지배구조 개선 속도도 높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에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롯데카드는 상장사가 아니지만 여성의 시각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늘렸다.

◆창업가·예술인 돕고, 지구 지키는 '핑크어스'

'핑크어스' 캠페인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단행한다. 캠페인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히든 크리에이터'로 나눠서 운영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치 창업가'를 의미한다. 지역 특산물 및 친환경 상품 판매, 지역민 고용 등으로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홍보 채널 강화에 집중했다. 롯데카드는 양질의 상품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크리에이터를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핑크어스 파트너스 기업 발표 시상식에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아암 환아 가족 위한 쉼터 후원금 전달식에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

지속 가능 캠페인 '핑크어스' 전개 지역경제 살리는 크리에이터 지원 ESG 경영 실천 브랜드·기업 발굴

소아암 환아 가족 위한 쉼터 지원 스포츠 꿈나무, 생활체육 등 후원

여성 사외이사 늘려 다양성 확대 UNGC 가입... 사회적 책임 강화 친환경 교통 혜택 주는 카드 출시도

디지털카툰 '핑샵' 입점 지원과 기획전 진행 등 크리에이터의 상품 판로를 확대했다. 추가 수익과 브랜드 인지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핑크어스 워크', '핑크어스 반핑' 등 기획전을 추가로 마련했다. 비용은 롯데카드가 전액 부담했다.

신인 작가인 '히든 크리에이터'도 후원한다. 디지털카툰을 디지털 갤러리로 활용해, 앱 시작 화면에 작가들의 대표작을 한 달씩 전시한다. 핑크어스 캠페인의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핑크어스 파트너스' 기업 6곳을 선발하고 1억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했다.

핑크어스 파트너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브랜드와 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롯데카드는 선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도 ▲디지털카툰 '핑샵' 입점 ▲SNS 활용 홍보·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ESG 캠페인 '핑크어스'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참여 업체 매출을 크게 신장시키는 등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도 핑크어스 파트너스 기업에 관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아암 환자 지원... 국가대표도 동참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숙박 시설 개선도 후원했다. 지난해 5월 후원금과 임직원 사회공헌기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2018년부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공동으로 '소아암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후원금은 1억8200만원 규모였다. 임직원이 마련한 635만9342원도 함께 전달했다. 후원금은 급여의 '끝전'을 모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나눔 캠페인과 임직원이 모금한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했다.

이같은 사회공헌기금으로 다섯 번

째 쉼터를 짓는데 일조했다. 소아암 쉼터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머물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소규모 숙박 공간이다.

서울 강북·강남 지역 주요 병원과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운영중이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이동으로 인한 체력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카드'를 출시했다. 카드 이용 금액의 1%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전환한다. ▲스포츠 꿈나무 장학금 지원 ▲생활체육복지사업 ▲자선대회 등 스포츠 사업 발전 및 불우 가정 지원에 활용한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및 지배구조 개선

롯데카드는 여성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지난 2021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협회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 2019년 김수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선임한 데 이어 두 번째 여성 사외이사 선임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UNGC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0년에 발족한 UN 산하기구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현재 전 세계 160여개국서 1만900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했다. 전기차·수소차·공유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카드 플레이트는 재생플라스틱을 50% 이상 함유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그린카드 제도에 합류하기 위해 카드를 출시했다"며 "기존 친환경 카드 대비 혜택을 강화한 3세대 그린카드다.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경제적인 이득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트리플A팀과 경기서 1안타 1볼넷
▲'황선홍호' 한국 축구, 26일 태국과 월드컵 예선 '리턴 매치' /사진 뉴시스

▲국립극장, 발달·시각장애 연주자와 '함께, 봄'...금나새 지휘·해설
▲서울시, '조각도시 서울' 프로젝트 시행...참여작가 모집



▲여자컬링, 이탈리아 꺾고 세계선수권 동메달 수확 /사진 뉴시스
▲문화재청, '제3회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경진대회'